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

- 여기에서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GDP대비 조세(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임.
 -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사회보장성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제보험과 연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text{조세부담률(\%)} = (\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명목GDP} * 100$$

$$\text{국민부담률(\%)} = (\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기여금}) / \text{명목GDP}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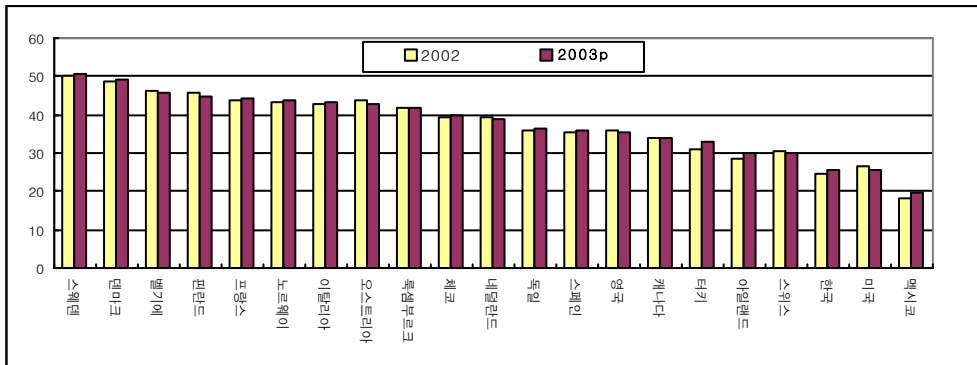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명목GDP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임. 이는 OECD 국가 평균(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
 - ※ 일본의 경우, 2002년 기준 국민부담률(25.8%)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4.4%)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GDP대비 5.0%로 캐나다(5.2%), 아일랜드(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체코, 프랑스, 스웨덴의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15%대 이상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여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20.5%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 덴마크(47.3%), 스웨덴(36.1%), 핀란드(32.9%) 등의 유럽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멕시코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단순 평균치일 뿐 그 자체로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KLI**

〈OECD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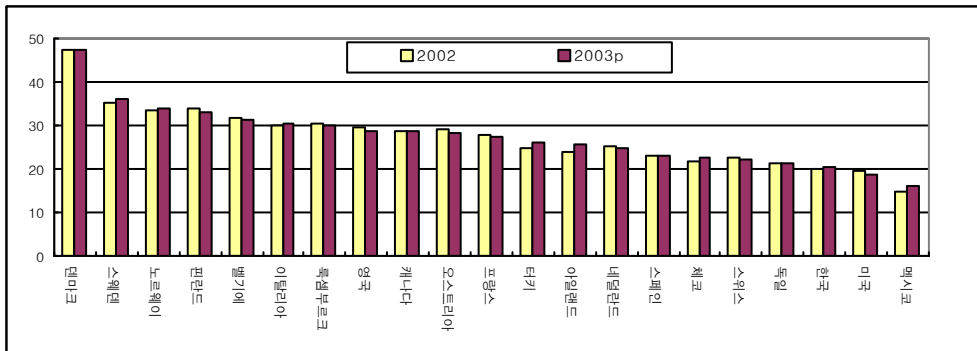
(단위 : %)



주 : 2003년 국민부담률(추정치)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정렬됨.

〈OECD 주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단위 : %)



주 : 2003년 조세부담률(추정치)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정렬됨.

〈OECD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p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p
오스트리아	40.4	41.6	43.4	45.2	44.0	43.0	27.1	26.5	28.6	30.4	29.3	28.4
벨기에	43.2	44.8	45.7	45.9	46.4	45.8	28.9	30.1	31.6	31.5	31.7	31.3
캐나다	35.9	35.6	35.6	35.0	33.9	33.9	31.5	30.6	30.7	29.9	28.7	28.7
체코	-	39.8	39	38.5	39.3	39.9	-	23.3	21.8	21.6	21.9	22.6
덴마크	47.1	49.4	49.6	49.9	48.9	49.0	45.7	47.9	47.3	47.7	47.2	47.3
핀란드	44.3	46	48	46	45.9	44.9	32.9	31.8	35.9	33.6	33.7	32.9
프랑스	43.0	43.9	45.2	44.9	44.0	44.2	24.1	25.3	29.0	28.7	27.7	27.5
독일	35.7	38.2	37.8	36.8	36.0	36.2	22.3	23.3	23.0	22.2	21.5	21.5
헝가리	-	42.4	39.0	39.0	38.3	-	-	27.3	27.6	27.4	26.7	-
아일랜드	33.5	32.8	32.2	30.1	28.4	30.0	28.5	28.1	27.9	25.8	24.1	25.5
이탈리아	38.9	41.2	43.2	43	42.6	43.4	26.1	28.2	30.8	30.7	30.1	30.5
일본	30.2	27.8	27.1	27.4	25.8	-	21.5	17.7	17.2	17.1	15.9	-
한국	18.1	19.4	23.6	24.1	24.4	25.5	17.1	18.0	19.7	19.7	19.8	20.5
룩셈부르크	40.8	42.3	40.2	40.7	41.8	41.6	29.8	31.1	30.3	29.8	30.6	30.1
멕시코	17.3	16.7	18.5	18.8	18.1	19.5	15.0	13.9	15.5	15.6	14.9	16.2
네덜란드	42.9	41.9	41.2	39.8	39.2	38.8	26.9	24.3	25.2	25.4	25.3	24.7
노르웨이	41.5	41.1	43.2	43.4	43.5	43.9	30.6	31.4	34.3	34.2	33.6	34.0
폴란드	-	37.0	32.5	31.9	32.6	-	-	25.7	23.0	22.3	23.1	-
포르투갈	29.2	33.6	36.4	35.6	33.9	-	21.3	23.5	25.5	24.6	24.7	-
스페인	33.2	32.8	35.2	35.0	35.6	35.8	21.4	20.9	22.9	22.5	23.0	23.2
스웨덴	53.2	48.5	53.8	51.9	50.2	50.8	38.7	35.1	39.0	36.6	35.1	36.1
스위스	26.0	27.8	30.5	30.0	30.3	29.8	19.9	20.3	23.1	22.3	22.5	22.2
터키	20.0	22.6	32.3	35.1	31.1	32.9	16.1	19.9	26.2	27.5	25.0	26.1
영국	36.5	35.0	37.4	37.2	35.8	35.3	30.3	28.8	31.1	30.9	29.7	28.9
미국	27.3	27.9	29.9	28.9	26.5	25.4	20.4	21.0	23.0	21.9	19.6	18.6
OECD 전체	34.8	35.9	37.2	36.8	36.3	-	26.6	26.6	27.9	27.4	27.0	-
EU 15개국	39.4	40.3	41.8	41.2	40.6	-	28.3	28.5	30.3	29.6	29.2	-

주: 1) 2003년도는 추정치임.

2)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의 비중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로 구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여금의 항목구성은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용자(employee), 고용주(employers),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연금 및 건강(의료), 실업보험 등의 기여금이 여기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자발적 사회보장기여금의 참여는 정부수입으로 간주되지만, Revenue Statistics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음.

자료: OECD, Database Revenue statistics.